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근본으로 돌아가 뜻을 얻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면 곧바로 어긋나."

問 如何是歸根得旨 師云 答你即乖 問 如何是疑心 師云 答你即乖也

근본은 삼라만상의 근원을 말한다. 우주 만물이 나온 곳, 사람이 나온 곳, 만가지 법칙이 나온 곳이 근원이다.

의심하는 마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렇듯 없고 형태도 없다.

좌주(座主:강사)가 물었다. "출가한 사람이 속가가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출가는 좌주 당신의 일이고.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은 노승이 관여할 바가 아니요." 좌주가 말했다. "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곧 출가요."

問 出家底人 還作俗否 師云 出家即是座主 出與不出老僧不管 云爲什麼不管 師云 與麼即出家也

출가란 탐진치 삼독의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하고도 세속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출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속한 속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해서 해탈을 구하는 것도 또한 욕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직 출가하지 못한 것이다. 출가는 깨닫는 것이다. 나 자신이 완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부처의 행을 전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명제는 누구보다 깨달은 자가 더 잘 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선부르게 이런저런 평을 할 문제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스승도 제자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무(無漏)의 지성은 사람마다 본래 구족(具足)하고 있다. 또 이르되 이것은 스승도 제자도 없다."

問 無師弟子時如何 師云 無漏智性本自具足 又云 此是無師弟子

무무지성(無漏智性)은 셈이 없는 지성이라는 뜻이다. 중생의 지혜는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 이것을 샌다[有漏]고 말한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인정해줄 스승은 필요하다. 스승은 경량자다.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다.



주성원의 기초 교리 <28>

사법인-③ 제법무아

제법무아(諸法無我)는 '모든 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모든 법'이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법을 말한다.

이 제법무아는 다른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불교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다. 기존의 인도철학 전통에서 아(我)란 불생불멸의 영원한 실체(實體)를 말한다.

그렇다고 무아가 완전히 없는 허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이론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성이나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 무자성에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법에는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不生不滅]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의미의 무아는 무소득(無所得: aprāpti)과 무가에(無罣碍: anāvaraṇa)를 말한다.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소유물이 변하지 않고 항상 있길 바라며 그것에 대해 집착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무아는 개인 혹은 세상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고 실천적인 무아는 이러한 이론적인 무아에 대한 자각에 기반 해서 더욱 완성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변하지 않는 나 없다' ... 大我が無我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의 두 종류로 설명한다. 먼저 인무아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법무아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변의 진리로서의 법은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의 법, 오온의 법 등은 불교 초기 아비달마불교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의하면 그 법체가 영원히 지속하는 것[法體恒有]이지만 대승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의 이상은 이와 같이 고정 불변한 것이 있다는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 나 고(苦)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걸림이 없는 자재의 경지를 얻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백 개 수레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에 싣는다면 물 위에 뜰 수 있다

TV 보기가 겁난다. 뉴스 듣기가 무섭다. 연일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안심을 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일까?

정치인들로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나름 일리있는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내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다. 아직 '그때' 가 안 와서일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 당장은 호구지책이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윤리적 삶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죽음과 내생을 인식시키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내가 이해하는 한, 불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금생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생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범죄자는 잡아서 처벌할 수밖에. 그런 처벌이 대증요법이 되겠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한 생만을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시안일인 것 같다.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죽음 이후의 내생이라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간다. 그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고, 조금이라도 더 진보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 생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는 오늘 이 삶에서의 '손해'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생을 위하여 나는 이 생을



그림 · 박구원

<무량수경>에서는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아미타불의 ...인용자) 나라에 태어나고자 함에도, 임종시에 대중들과 함께 그의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장보살의 본원(本願)이 기록되어 있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무량수경>의 10님이 곧 <밀린다파랑하>의 1님이요), 아미타불께서 여러 대중들을 데리고 환영하러 오신다는 말씀이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염불이 곧 악행이라는 무거운 돌을 실어주는 '배(船)'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배는 우리를 실어서 고해바다를 건너간다. 극락이라는, 나의 내생으로 나를 실어다 준다. 이렇게 <밀린다파랑하>는 <무량수경>의 주석서가 되기도 한다. 기쁘고도 놀랍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두타선원 (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월요일: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화요일: 간화선 생활수행, 내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요일: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류현근 육재생 및 호흡법 <법현스님>
목요일: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의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혀 김경규>
금요일: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전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제 <법현스님>

범음범패학인 모집
과정: 초·중·고급과정 수시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
특강: 호적(태평소), 작법무(바라무, 나비무), 사물작법(태징, 북, 목탁, 요령 등)
운영방법: 회원제 운영, 수강료 무료, 수시모집, 각 사찰 포교와 제반불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실전강의
교육장소: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618 (삼보사)
문의처: 010-4910-6358 / 010-8612-6914
대승불교염불원

설법·화술 무료 공개강좌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40년 노하우, 우물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 무료공개강좌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4~6시
설법연수일정
수시접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2개월 과정)
종합반을 진도식 교육이 아닌 훈련식으로 교육
개인지도 : 환영 (직접 상담 결정)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번지 교명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 02)747-1567
국민011-24-0405-181 | 농협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